

최항의 경서 구결에 대하여

안병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세종의 훈민정음 곧 한글 창제는 그 서문에 밝힌 대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문자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인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의 서문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 한글 28자로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 요긴하고 정밀하면서 통달하여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데, 이로써 한문으로 된 글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소송을 다루면 그 실정을 터득할 수 있고,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분별하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고르게 된다고 하고서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정인지가 한글의 효용 네 가지 중에서 소송에서의 한글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종 당대에 실효를 드러내었다. 한문으로 된 경서(經書)의 번역과 구결, “동국정운”의 편찬, 그리고 “세종실록”의 부록에 수록된 “악보(樂譜)”에는 한글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동국정운”의 편찬과 함께 한문으로

된 교화서나 경서의 번역과 구결을 일찍부터 생각하였던 사실은 확실한 일이다. 더욱이 그 번역과 구결은 한글 창제에 협찬하지 않은 집현전의 학사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고 자문하였다. 이 자문이 실록에 단독 기사로 나타나지 않으나, 최만리 등의 ‘언문 반대 상소문’의 처리 과정에 관한 기사에서 확인된다. 세종이 상소문을 읽고 최만리 등을 힐문하고 최만리 등이 변명한 기사에 이어 세종이 전에는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한글을 창제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안 된다고 하고, 정창손(鄭昌孫)이 전에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뒤에 효자, 충신, 열녀가 배출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행실은 그 재질이 어떠함에 있고 한글로 번역한다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이들의 말이 어찌 선비의 말이라 하겠느냐 하면서 매우 쓸모없는 속유(俗儒)라고 말한 기사로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최만리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보낸 뒤에 이튿날 석방하였으나, 정창손과 김문은 파직되었다가 4개월 뒤에야 복직되었다. 더욱이 김문은 왕의 같은 자문에 상반된 의견을 아뢴 죄로 형률(刑律)에 곤장 100에 도형(徒刑) 3년을 과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곤장만 속전(贖錢)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창손과 김문에 대한 처벌로 교화서나 경서의 번역과 구결은 창제 전에 집현전 학사들에게 세종의 자문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¹⁾ 표제의 경서 구결도

1) 한글 반대 상소의 소두(疏頭)는 가장 상위직 학사인 최만리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곧 그를 상소의 주동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글 창제를 다룬 사극에서 세종의 힐문에 최만리가 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술서에도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러나 실록의 어디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사는 없다. 한결같이 ‘최만리 등(崔萬理等)’이 상소를 올리고 ‘만리 등’이 변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관(史官)이 변명한 학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상소한 학사들의 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상소의 뒤처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최만리 등은 모두 의금부에 내려져 이튿날 석방되어 더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직 정창손과 김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 아마도 주동 인물은 그중에 있지 않을까 한다. 김문은 한글 창제에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동요하였을 뿐 아니라 창제 후에는 경서의 번역과 구결 확정에 참여하였으나(이에 대하여는 뒤에 설명한다), 정창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하였고 창제 후에도 적어도 세종 때에는 한글 관련 사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가 말한 사람의 재질이 교화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론은 상소의 한 항목으로 형옥(刑獄)의 공정성이 한글 사용

바로 세종의 자문과 연관된 일이다.

2. 최항의 경서 구결

서거정(徐居正)이 쓴 최항의 비문에는 세종이 김문, 김구(金鉤)와 공에게 “소학(小學)”과 사서, 오경(五經)의 구결을 확정하도록 하였을 때 서거정 자신도 그분들의 뒷자리에 참여하였는데 의견이 갈릴 적마다 다른 분들이 공의 의견을 추대함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연도순으로 된 비문의 이 기술이 1447년 최항의 중시(重試) 합격 뒤에 나오므로 그 해에 경서 구결의 왕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세종실록”에는 1448년(세종 30) 3월 13일 김문의 졸기(卒記) 끝에 “이에 이르러 “사서”를 번역하게 하고 특별히 자금을 올려 바야흐로 중용하려 하였는데 중풍으로 폭사하였다” 하고 기술하였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임명된 지 겨우 반년인 상주 목사 김구(金鉤)를 역마(驛馬)로 불러 김구의 후임으로 사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비문과 실록 기사의 연도는 대체로 일치하나 사업의 내용은 다르다. 일관되게 비문은 경서의 구결이라 하고 실록은 경서의 번역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10여 년 뒤에 세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 “소학”과 경서의 구결을 확정된 것이며, 경서의 번역은 140여 년 뒤에 선조의 명령으로 교정청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때의 사업이 경서의 번역이 아니라 비문의 기록과 같이 경서 구결이라

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옥리(獄吏)의 자질에 달렸다고 한 내용과 서로 통한다. 이에 상소의 주동 인물은 정창손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가 정창손 등의 처벌로 재론되지 않은 점도 그 추정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그는 불교 반대 상소로 나흘 동안 의금부에 갇혔다가 좌천되기도 하였다(1446. 10. 9. 10. 13. 및 10. 15. 실록 참조). 소신에 철저한 원칙주의자인 사실에서도 주동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2) 이 글의 경서 구결은 필자의 ‘세조의 경서 구결’(“국어사 자료 연구”, 1992)을 약간 보완한 내용이다. 경서 구결이 세조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최항이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구결의 확정에도 깊이 관여하였음에 초점을 맞추어 고쳐 쓴 것이다.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함이 온당해 보인다. 요컨대 세종은 한글 창제 직후인 1447년 중에 김문에게 창제 전부터 자문한 경서의 구결을 명령하였고, 최항도 그 일에 참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때의 사업이 경서 구결이라 하는 데에는 다른 근거도 있다. 세종은 이보다 거의 20년 전인 1428년에 변계량(卞季良)에게 “예기(禮記)”와 사서의 구결을 달도록 명령한 기사가 실록에 나타난다. 곧 일찍이 태종이 권근(權近)에게 오경의 토 곧 구결을 달라고 하여 삼경의 구결은 달았으나 그때 마치지 못한 “예기”와 사서의 구결을 확정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한글이 창제되기 훨씬 전이므로 이때의 구결은 이두로 달았을 것이다.³⁾ 이와 같이 이두로 구결을 다는 일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세조실록” 1465년(세조 11) 11월 12일의 기사에는 왕이 예조에 명령하여 우리나라 선유(先儒)가 정한 경서 구결과 정몽주(鄭夢周)의 “시경” 구결을 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설총의 경서 훈해가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려 말 신유학(新儒學)을 받아들이면서 경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 선유에 의한 구결의 확정이 새로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결은 이두로 되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 직후에 세종이 나라에서 한글로 구결을 확정하도록 하여 그것을 김문 등에게 명령하였다고 추측된다. 세종이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정창손에게 “삼강행실도”의 언해를 자문한 사실로 미루어서는 궁극적으로는 경서의 번역까지 생각하였겠지만 우선 구결부터 확정하여 경서의 대문(大文) 곧 정문(正文)을 정확하게 읽도록 하는 순서를 택하였다고 해석된다.

3) 필자는 자신도 차자표기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두란 용어가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차자(借字)는 원래 육서(六書)의 하나인 가차(假借)로 된 한자를 가리킨다. 현대 일본어의 일반적인 표기, 예컨대 “문(門)을 열(開)었다”는 郷札이나 이두와 똑 같이 음독(門) 또는 훈독(開)의 한자와 함께 가나(假名)를 혼용하지만, 이 표기를 차자표기라 하지 않는다. 가나는 차자이나 한자는 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향찰과 대립되는 협의의 이두와 향찰을 아우르는 광의의 이두를 구별하여 차자표기에 대신하기로 한다. 이러한 용어는 홍기문, “이두 연구”(1957)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구결을 확정하는 사업은 결말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완결되었다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뒤에 말할 18세기 초의 “예기대문언두(禮記大文諺讀)”의 간어(刊語)에 세종 조에 성삼문과 신숙주에게 서로 토론하여 “예기”에 현두(懸讀) 곧 구결을 달게 하여 진상하게 하였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그때의 구결서가 현재까지 전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희춘(柳希春)이 1574년(선조 7)에 왕명으로 착수한 경서 언해 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홍문관과 개인에게 수소문하여 구한 책에도,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에 의하면 세조 이전의 구결서로는 세조가 구결을 단 “주역대문”(이는 뒤에 말할 “주역전의구결(周易傳義口訣)”을 가리킨다)만 나타난다. 그리하여 경서 구결의 확정 사업은 문종, 단종, 세조 초의 혼란기를 지난 뒤에 세조의 명령으로 새로이 추진되어 결말을 보게 된다. 이 사업에는 최항이 중심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경서소학구결발(經書小學口訣跋)’을 지어 그의 문집인 “태허정집(太虛亭集)” 권 2에 남겼다.

발문은 경서 구결의 필요성, 구결 작업의 내역과 진행, 이 사업에 대한 칭송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에 착수한 세조의 의도와 작업 분담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다. 먼저 구결 사업의 의도를 발문에서 보기로 한다.

글이란 참으로 하루라도 강구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는데, 그중에도 경서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항상 근심되는 것은 세상 선비들은 스승의 가르침이 밝지 못하여 역견(臆見)만 높으니 누구에게 나아가 바르게 할 것이며, 구두도 아직 통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겨를에 귀취(歸趣)를 찾겠는가. 대저 글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정경(正經)을 밝혀야 될 것이니 정경을 이미 밝히게 되면 제가(諸家)의 해석이 이미 확실하게 되어 있으며, 글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어결(語訣)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니 어결이 이미 바르게 되면 여러 갈래의 의혹이 절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정경에 구결이 있음은 참으로 선비에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글은 항상 강구하여야 하는데 경서가 가장 중요한 글이며, 경서를 강구하

려면 본문의 구두를 통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서 본문의 어절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인데 어절을 바르게 하는 데는 구결이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어절은 경서에 쓰인 한자의 발음이나 말뜻과 구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세조가 추진한 경서와 “소학”의 구결 사업은 이들 책의 본문에 구결을 달아서 선비들에게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스스로 “주역”과 “소학”에 구결을 달고 나머지 경서는 신하에게 나누어서 구결을 달았다고 한다. 발문은 그 분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역”의 글은 가장 정묘하고 은미(隱微)하니 천하의 지신(至神)이 아니면 누가 알아서 열어 보일 것인가.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임금께서는 만기(萬機)의 남은 겨를에 구결을 잠시 정하시어 사성(四聖)의 뜻을 손바닥 가리키듯 밝히셨고, 또 “소학”이 더욱 학자가 도에 들어가는 문에 간절한 것이라 하여 또한 스스로 구결을 정하였고, “시경”은 하동군 신 정인지(鄭麟趾), “서경”은 봉원군 신 정창손, “예기”는 고령군 신 신숙주, “논어”는 한성부윤 신 이석형(李石亨), “맹자”는 이조판서 신 성임(成任), “대학”은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 신 홍응(洪應), “중용”은 형조판서 신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시어 구결을 하게 명하시었다. 이미 마치자 또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신 구종직(丘從直)과 동지사(同知事) 신 김예몽(金禮蒙)과 공조참판 신 정자영(鄭自英)과 이조참의 신 이영은(李永垠)과 호조참의 신 김수녕(金壽寧)과 전 우승지 신 박건(朴健) 등에게 명하여 논란하고 교정하게 명하셨는데 매우 긴요한 곳을 만나게 되면 모두 아뢰어 예단(睿斷)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분담의 내용과 교정의 관여자가 드러나 있다. 거의 모든 재추(宰樞)와 경학에 밝은 문신이 동원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결: “주역” 세조 “소학” 세조 “시경” 정인지 “서경” 정창손
 “예기” 신숙주 “논어” 이석형 “맹자” 성임 “대학” 홍응

“중용” 강희안

교정: 구종직, 김예몽, 정자영, 이영은, 김수녕, 박건

교정까지 마친 책은 전교서(典校署 교서관의 고친 이름)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고 발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교서(典校署)에 명하여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셨는데, 다만 “주역”은 정경 아래에 정주(程朱)의 전(傳)을 붙여서 간행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소학”과 경서를 읽는 데 지남(指南)이 비로소 갖추어졌으므로 문(文)에 따라 뜻이 순하여 각각 그 바름을 얻어서 가르쳐 주는 수고를 아니 하고도 얼음이 녹는 것처럼 의혹이 풀리어 그 귀취와 요령은 다만 정경을 보고도 문득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주역”의 구결은 본문 아래에 정자와 주자의 전의(傳義)를 붙여서 간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책은 경서의 본문에 구결만 달아서 간행하였음을 암시한다. 구결 확정이 경서의 본문을 정확하게 읽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한 발문의 허두 내용과도 부합한다. 오늘날 전하는 당시의 구결서도 다음에 보게 될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위의 발문만 보면 경서 구결에서 최항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세종 때부터 경서 구결 확정 사업에 참여한 경력으로 보든지, 이 발문을 쓴 비중으로 보아서 스스로 국외자처럼 보이게 한 것은 최항의 지나친 겸사이다. “세조실록”(1468년, 세조14, 8월 8일 을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 겸사를 말한다.

최항 등에게 명하여 먼저 “소학”과 “주역”의 구결을 정하고, 다음에 “예기” 구결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경”과 “서경”의 구결은 이미 양촌(陽村)이 정하였으므로 우선은 이를 정지하게 하였다.

이 기사는 세조의 경서 구결 사업의 중심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서거정의 비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

세조께서 일찍이 “동방의 학자들은 어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구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록 권근과 정몽주의 구결이 있으나 오류가 오히려 많아서 낡은 생각을 가진 쓸모없는 유생과 속된 선비들이 잘못을 전하고 그릇됨을 이어 간다.” 하고 탄식하시어 드디어 신 정인지, 신숙주, 구종직, 김예몽, 한계희(韓繼禧) 및 공과 신 서거정 등에게 오경과 사서를 나누어 주어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증거하여 구결을 정해서 올리게 명하셨다. 세조께서 또 여러 신하를 불러 모으시고 강론이 같지 않은 것에 친히 예재(睿裁)를 가하셨는데, 공이 좌우에 있으면서 매양 고문을 받아 매우 세밀히 분석하여 응대함이 소리에 메아리가 따르듯 하고 모두 중의(衆議)에 만족하였으므로 세조께서 좌우에게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천재로다.” 하셨다.

이를 보면, 위 발문에 나오지 않는 한계희와 서거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중요한 증언은 최항이 구결의 논의에서 매양 세조의 고문을 받아 문의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응대하여 여러 문신의 뜻에도 만족하였으므로 세조에게서 최항은 참으로 천재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거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486년(성종 17)에 쓴 ‘태허정집서(太虛亭集序)’에서는 오경 사서 구결을 최항의 편찬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최항은 세조의 경서 구결 사업의 중심에서 그것을 총괄하여 추진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경서소학구결발’을 짓게 되었다고 하겠다. 세종의 명령으로 추진된 경서 구결 사업과는 달리 세조의 명령으로 추진된 같은 사업은 세조와 최항의 노력으로 비로소 단락을 보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문체된 구결은 선조 때 교정청의 경서 언해 사업으로 대단락을 짓게 되었지만, 이로써 고려 말 이래로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에서 추진한 경서 구결은 확정되었다. 그 사업이 유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항의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구결서로는 적어도 3종의 경서가 있다. 먼저 세조가 구결을 단 “주역전의(周易傳義)”가 있다. 서명 다음에 ‘강녕전(康寧殿) 구결’이라 있으므로 국어학계에서는 “주역전의구결”이라 부른다. 강녕전이 왕의 침전(寢殿)이고, 위의 발문에서 “주역” 구결은 세조가 달았다고 할 뿐 아니라 실록에서 세조가 문신을 불러 “주역” 구결을 논의한 기사가 많으므로 세조가 단 바로 그 책이다. 발문에서 이 책만 정자와 주자의 전의를 붙여서 간행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책의 체제가 그러하다.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의 본문에 구결을 달고 정자와 주자의 전의를 붙인 것인데, 전의에 계속되는 제가(諸家)의 주석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을해자로 된 원간본은 세조가 성균관에 이 책을 반사하였다는 1466년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간본은 영본으로 전하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복각본 전질은 일본에 전한다. 따라서 세조가 단 구결은 이들로 확인된다. 그 권 21은 교정청 “주역언해” 권 4(58a-75b)에 수록되었는데, 구결이 대체로 비슷하나 차이도 있다. 그런데 이 을해자본의 본문은 구결이 달려서, 판식과 인묵(印墨), 지질 등으로 15세기 후반의 목판본이 분명한 “주역전의대전”의 천두(天頭) 곧 난상(欄上)에 인쇄되어서도 전한다. 따라서 당시의 구결은 그와 같이 한문본의 원전 난상에 인쇄하여 보급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다음의 구결서가 그러한 예다.

판식과 인묵, 지질 등으로 15세기 후반의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典)” 권 13-16, 1책이 그러하다. “주역전의대전”과 같이 본문에 구결을 달아서 난상에 따로 인쇄하였는데, 그것이 원전의 상변란(上邊欄)에 물린 일이 더러 있다. 그러므로 원전이 먼저 출판된 뒤에 구결이 달린 본문만 따로 새겨 인쇄한 것으로 생각된다. 난상의 구결에는 △과 간혹 씨이 ‘에사, 훌쩍’와 같이 사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결은 1707년(숙종 33)의 무신자본(戊申字本) “예기대문언두”에 △, 씨이 ○, ㅅ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수록되어 중간되었다.⁴⁾ 간어(刊語)에서는 세종 때에 “예기” 본

4) 간년에 대하여는 간어의 끝에 교서관에서 주자(鑄字)로 인출하게 하니 때는 ‘정해(丁亥) 6월의 일이다’ 하였다. 이 정해는 1707년(숙종 33)이거나 1767년(영조 43)일

문에 구결이 없어서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상론하여 구결을 달게 하여 진상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제 간행하는 “예기집설대전”의 난상에 부간(附刊)한 것이 그것이라 하였다. 당시 목판본 “예기집설대전”에도 15세기 후반 간본과 같이 난상에 구결이 나타난다. 그러나 세종 때 성삼문, 신숙주 등이 구결을 달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이들은 한글 창제 후로는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에 관여하였고, 더욱이 최항의 발문에서 신숙주가 “예기”의 구결을 확정하였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기대문언두”의 구결은 세조 때에 신숙주가 확정된 것이라 함이 온당하다.

이 밖에도 16세기 중반의 을해자본인 “소학집설(小學集說)”과 “논어대문구결(論語大文口訣)”이 전한다. 전자는 난상의 구결까지 을해자로 인쇄한 점이 특이하고, 후자는 본문에 구결을 달아서 간행한 것이다. 이들 구결서가 세조 때의 것인지 간년인 16세기 중반 이전의 어떤 시기의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정청 언해서의 구결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은 세조 때에 확정된 구결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고서 확정된 구결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두 구결서도 세조 때의 구결과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세조 때에 최항이 주관하여 확정된 경서와 “소학”의 구결은 유학의 교육과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국어사 자료를 제공하는 점으로 국어사 연구에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최항의 구결 연구의 의미인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책에 사용된 무신자가 이지러진 점이 없는 데다가 남학명(南鶴鳴, 1654-1714 호종 5-숙종 40)의 장서인을 가진 실책(이인영,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 1968)” 참고)이 전하므로 1707년의 간행이다. 더욱이 간어에는 홍문관에서 경연에 참고하기 위하여 간행을 아뢰었다고 하였는데, “숙종실록” 35년(1709) 9월 21일(무자) 조에 “예기”에 계속하여 경연에서 강할 서책에 대한 논의 기사와도 일치한다. 서명의 ‘언두(諺讀)’는 간어에서 현토(懸吐)를 ‘현두(懸讀)’라 한 예와 같이 언토(諺吐) 곧 한글 구결과 같은 용어이다.

3. 맺음말

세종이 인재의 양성과 문풍(文風)의 진작을 위하여 대궐 안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문신을 선발하여 학문에 정진하게 하면서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기의 문화, 정치, 제도를 이끌어 간 사람들이 대부분 집현전 출신이었다. 최항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걸출한 사람의 한 분이다. 관직에 나아간 지 40년에 한 번도 탄핵을 받지 않았으며 현직(顯職)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항상 관각(館閣)의 직을 겸하였다고 한다.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학식으로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일컬어지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월의 문화인물로서 최항이 선정된 것은 국어와 관련된 그의 업적 때문이다. 너무나 유명한 일로서 그는 이른바 ‘언문팔유(諺文八儒)’의 한 사람으로 신숙주, 성삼문 등과 함께 세종의 한글 창제를 보필하고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를 편찬하여 한글의 제자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하고 용례를 보인 공로가 있다. 언문팔유 가운데서 집현전 대제학으로 겸직인 정인지를 제외하면 전임학사로는 그가 가장 상위직에 있었다. 이로써 한글 창제에서 그의 역할을 미루어 알 것이다. 그는 한글 창제에 계속된 사업의 하나인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리하였다. 이 두 일만으로도 그가 우리 문화사에 남긴 발자취는 큰 바 있다. 그 밖에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주해 작업, 양성지(梁誠之)의 “잠서(蠶書)”의 언해, “역대제왕후비명감(歷代帝王后妃明鑑)”의 편찬, “무경(武經)”의 구결 작업에 관여하였다. 그러한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는 이 책의 다른 글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을 삼가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국어학사 등에서 거론되지 않는 세조 때의 경서 구결 확정에 기여한 업적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 언해의 부속 문자에 의하면, 세조는 직접 불경

을 이해하기도 하였지만 주요 불경의 경우에는 스스로 구결을 확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등이 그러한 책이다. 그 정도로 구결이 경전 이해의 기본임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전 구결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불경 언해가 어느 정도 단락을 지은 말년에 이르러 세종이 명령하여 결말을 보지 못한 경서의 구결을 스스로도 참여하여 확정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예문관 대제학으로서 세종 이래로 여러 전적의 언해와 구결 작업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한 최항을 그 구결의 확정 사업에 주관자로 발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세조의 신임에 부응한 결과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인 것이다.